

김연경, 흥국생명 어드바이저로 배구인생 2막



지난 14일 열린 프로배구 도드람 2024-2025 V리그 시상식에서 여자부 20주년 역대 베스트 7에 선정된 흥국생명 아웃사이드히터 김연경이 소감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프로축구 박지성·구자철, 프로야구 김성근 전 감독·김태균도 맡아
다음달 6~9일 튀르키예 외국인 선수 트라이아웃·드래프트 동행

2024-2025시즌을 끝으로 은퇴한 '배구 여제' 김연경(37)이 어드바이저라는 직함으로 배구와 인연을 이어간다.
김연경은 프로배구 V리그 시상식이 열렸던 지난 11일 정규리그 최우수선수(MVP)로 선정된 후 인터뷰에서 은퇴 후 진로를 묻는 말에 "흥국생명에서 어드바이저 역할을 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은퇴 후에도 배구와 관련된 일을 하고 싶다"는 김연경의 희망이 이뤄진 것이다.
흥국생명 어드바이저는 구단의 제안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업무 범위를 포함한 세부 조율은 남아 있는 상태다.
우선 다음 달 6일부터 9일까지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열리는 외국인 선수 트라이아웃 및 드래프트 현장에 동행하는 일정은 확정됐다.
김연경은 튀르키예 페네르바체 사령탑으로 옮긴 마르첼로 아본단자 전 감독의 뒤를 이어 지휘봉을 잡은 요시하라 도모코(55) 감독에게 외국인 선수

선발과 관련한 조언을 할 것으로 보인다.
흥국생명은 통합우승 주역인 외국인 거포 투트쿠 부르주(등복명 투트쿠)와 재계약하지 않은 채 외국인 선수 트라이아웃 상황을 지켜본 후 어떤 선수를 뽑을지 결정한다는 구상이다.
김연경의 에이전트사 관계자는 "김연경 선수의 유럽 휴가가 잡혀 있던 상황에서 트라이아웃이 튀르키예에서 열리기 때문에 일정이 맞았다"면서 "폭넓은 인적 네트워크와 정보를 가진 김연경 선수가 외국인 선수를 선정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연경의 어드바이저 선임은 프로축구와 프로야구 등 다른 프로 종목 사례를 참고했다.
프로축구에선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뛰었던 '영원한 캡틴' 박지성이 2021년 1월 K리그 전북 현대의 어드바이저로 위촉돼 활동했다.
박지성은 영국과 한국을 오가며 비상근으로 프로 및 유소년 선수 선발과 육성, 스카우트, 훈련 시스

템 등과 관련해 전복에 조언하는 역할을 했다.
그는 2022년 9월에는 어드바이저에서 테크니컬 디렉터로 승격해 선수 평가와 구성까지 관여하는 총괄 역할까지 수행했다.
또 프로축구 제주SK도 올해 1월 프랜차이즈 스타 출신의 구자철을 유소년 어드바이저로 선임했다.
구자철은 유럽 축구팀들의 유소년 시스템 및 훈련 프로그램을 제주 구단에 접목하는 역할을 한다.
프로야구에서는 '야구의 신'으로 불리는 김성근 전 SK 와이번스 감독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일본 소프트뱅크 호크스의 감독 어드바이저(감독 고문)를 지냈다.
또 한화의 프랜차이즈 스타인 김태균도 2020년 은퇴 후 단장 보좌 어드바이저로 활동했다.
김연경도 2020 도쿄 올림픽을 끝으로 여자배구 국가대표팀에서 은퇴한 후 2023년 대표팀의 어드바이저를 맡아 후배들의 멘토 역할을 한 적이 있다.
특히 흥국생명은 작년 7월 흥국생명연수원으로 초청해 합동훈련을 했던 세화여중, 세화여고 배구단 선수들에게 맞춤형 훈련을 제공했던 만큼 김연경이 어드바이저로 후배들에게도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연합뉴스

한국·태국 여자배구 스타 총출동...울스타 슈퍼매치 열린다

19~20일 화성종합경기타운

한국과 태국 여자 배구 스타들이 총출동하는 '2025 한국·태국 여자배구 울스타 슈퍼매치'가 오는 19일과 20일 화성종합경기타운에서 펼쳐진다.
한국 울스타는 강성형 감독(현대건설)의 지휘 아래 AI페퍼스의 박정아와 박사랑을 비롯해 강소휘·김다은(이상 한국도로공사), 염혜선·정호영(이상 정관장), 이다현(현대건설) 등 베테랑 선수단과 프로 데뷔 5년차 이내 선수진으로 꾸려졌다.
태국 선수단은 키아티퐁 감독과 주장 타나차 썩숏(한국도로공사), 낫타니차(블루캣츠), 핫타야 밤롱숙(퀸세이스 카리아) 등 태국 대표팀 주축 선수들이 맞붙을 놓는다.
배구팬들을 위한 다양한 즐길거리로 마련된다.
경기 시작 전 인기 가수들의 공연과 플리마켓존이 운영돼 푸드트럭, 페이스페인팅 등 다채로운 체험이 가능하다.
특히 19일 경기 후에는 한국과 태국 선수들이 참여하는 팬사인회도 열린다.
경기는 19일 오후 2시, 20일 오후 6시에 시작되며 티켓은 티켓링크 및 현장 매표소를 통해 구매할 수 있다. 지정석제로 운영되며 입장권은 1층 2만원, 2·3층은 1만원이다. /김다민 기자 kdi@



유럽·아시아·북중미 "FIFA 월드컵 64개국 확대...논의 가치 없어"

국제축구연맹(FIFA) 월드컵 100주년이 되는 2030년 대회 본선 출전 국가 수를 64개로 확대하자는 제안에 유럽, 아시아뿐 아니라 북중미까지 반대 의사를 표했다.
빅터 몬탈리아니 북중미카리브축구연맹(CONCACAF) 회장은 지난 15일(한국시간) 스포츠 매체 ESPN과 인터뷰에서 "아직 48개국이 나서는 월드컵도 해본 적 없다. 64개국 확대 안건은 논의할 가치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64개국 확대안은 월드컵 대회는 물론 국가대표팀, 구단, 리그를 포함한 넓은 축구 생태계에도 바람직하지 않은 결정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남미 측을 제외한 유럽, 아시아, 북중미

대륙 연맹 모두 '64개국 대회'에 일제히 반대 목소리를 냈다.
앞서 셰이크 살만 빈 에브라힘 알 칼리파 아시아 축구연맹(AFC) 회장은 12일 AFP통신과 인터뷰에서 "혼란만 초래할 것"이라며 "누군가는 132개국으로 늘리자고 요구하게 될 수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64개국 체제 월드컵'은 남미 측의 아이디어다.
지난달 초 온라인으로 진행된 FIFA 평의회 회의가 끝나갈 무렵 이그나시오 알론소 우루과이 축구협회장이 월드컵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2030년 대회만 참가국을 64개로 늘리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 제안이 각종 국제대회 규모를 키우는 잔니 인

판티노 FIFA 회장의 지지를 받는 결로 보인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으나 각 대륙 연맹 수장들의 일제 반대에 부딪히면서 힘을 잃는 모양새다.
1930년 우루과이에서 첫 대회를 치른 FIFA 월드컵은 1998년 프랑스 대회부터 32개국이 본선에 출전해오다 북중미 3개국(미국, 캐나다, 멕시코)이 공동 개최하는 2026년 대회에서 48개국으로 참가국 수가 확대됐다.
2030년 대회는 유럽의 스페인과 포르투갈, 아프리카의 모로코 3개국이 공동으로 개최한다.
여기에 대회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우루과이, 아르헨티나, 파라과이에서도 총 104경기 중 한 경기씩을 치르기로 해 사상 처음으로 3개 대륙 6개국에서 대회가 열린다. /연합뉴스

광주·전남 테니스 동호인, 광주서 실력 겨룬다

다음달 6일 건강드림365약국 테크노클럽배 테니스대회

광주시 생활체육 테니스 동호인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오는 5월 6일 '제1회 건강드림365약국 테크노클럽배 혼합복식 테니스대회'가 첨단구립코트(본부), 소촌구립코트, 월곡코트에서 열린다.
참가 자격은 광주·전남 지역 클럽에 소속된 남녀 동호인으로 제한되며, 남자는 남자신인부 기준 4.0-1.0, 여자는 8.0-1.0 사이 등급만 출전할 수 있다.
두 사람의 등급 합산은 9.0 이하여야 하며, 남자 일반부, 우승 경력자, 선수 출신 및 지도자는 출전

할 수 없다.
이번 대회 우승팀에는 트로피와 함께 상금 100만원이 수여되며, 준우승팀에게도 트로피와 상금 60만원이 주어진다. 공동 3위 두 팀에게는 상장과 각 40만 원의 상금이 지급된다. 또 8강에 진출한 팀은 20만원, 16강 진출팀도 10만 원의 상금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이번 대회는 건강드림365약국과 테크노클럽이 공동 주최하고, 테크노클럽이 주관한다.
시합구로는 헤드 챔피언십 테니스볼이 사용된다. /김다민 기자 kdi@kwangju.co.kr

PSG 이강인, 챔스리그 4강 무대 밟는다

8강서 애스턴빌라 5-4로 앞서

이강인의 소속팀 프랑스 프로축구 파리 생제르맹(PSG)이 잉글랜드 애스턴 빌라의 끈질긴 추격을 뿌리치고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 4강에 진출했다.
PSG는 16일(한국시간) 영국 런던의 빌라파크에서 열린 2024-2025 UCL 8강 2차전에서 애스턴 빌라에 2-3으로 패했다.
홈에서 열린 1차전에서 3-1로 이긴 PSG는 1, 2차전 합계 5-4로 앞서 4강 진출에 성공했다.
구단 사상 첫 UCL 우승을 노리는 PSG는 지난 해에 이어 2회 연속 4강에 오르는 성과를 냈다.
지난 시즌 대회에선 준결승서 보루시아 도르트문트에 패해 구단 사상 첫 결승행에 실패했다.
PSG는 아스날-레알 마드리드 경기 승자와 홈 앤드 어웨이로 결승 진출을 다툰다.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EPL)에서 극적으로 4위에 올라 UCL 티켓을 손에 넣은 애스턴 빌라는 42년 만의 유럽 최고 무대 도전을 8강에서 아쉽게 끝냈다.
PSG 주전 정장에서 밀린 이강인은 교체 명단에 이름을 올렸으나 그라운드를 밟지는 못했다.
PSG는 전반 11분 만에 아슈라프 하킴의 선

제골로 앞서나갔다.
애스턴 빌라 골키퍼가 PSG의 망볼 크로스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 튀어나온 공을 문전으로 쇄도하던 하킴이 오른발 논스톱 슈팅으로 연결해 골대를 갈랐다.
전반 27분엔 PSG의 추가골이 터져 1, 2차전 합계 5-1로 앞서나갔다.
우스만 덴벨레가 오른쪽에서 망볼 크로스를 넘기자 누네 멘데스가 정면에서 원발 망볼 슈팅을 날려 득점했다.
패색이 짙어졌는데도 포기하지 않던 애스턴 빌라는 3골을 연달아 뽑아내며 끝난 줄 알았던 승부를 뒤집으려 했다.
승부를 원점으로 돌리려는 애스턴 빌라의 공세는 계속됐다. 그러나 PSG 골키퍼 잔루이지 돈나룸마의 빛나는 선방에 막혀 동점골은 넣지 못했다.
후반 14분 골대 구석을 노린 티레만스의 헤더, 후반 25분 마르코 아센시오가 일대일 상황에서 시도한 원발 슈팅이 모두 돈나룸마의 손에 걸렸다.
후반 추가시간에는 이안 마트센이 날린 통렬한 원발 발리가 파초의 다리를 맞고 나와 땅을 쳤다. /연합뉴스

즐거움

문화 산책

광주예술의전당

문의 062)613-8233

GAC 기획공연 포커스 박종성*김형석 프로젝트 '그대, 다시'

일시 : 2025-04-17(목) 19:3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소극장

문의 : 062-613-8233

GAC 공모전시

자연은 그렇다 환경은 그렇지 않다 : 추송준 개인전

일시 : 2025-3-28(금)~2025-4-27(일)

공연 있는 날 10:30 ~ 19:30

공연 없는 날 10:00 ~ 18:0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갤러리

문의 : 062-613-8357